

“ESG’ 성과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환경·사회·지배구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ESG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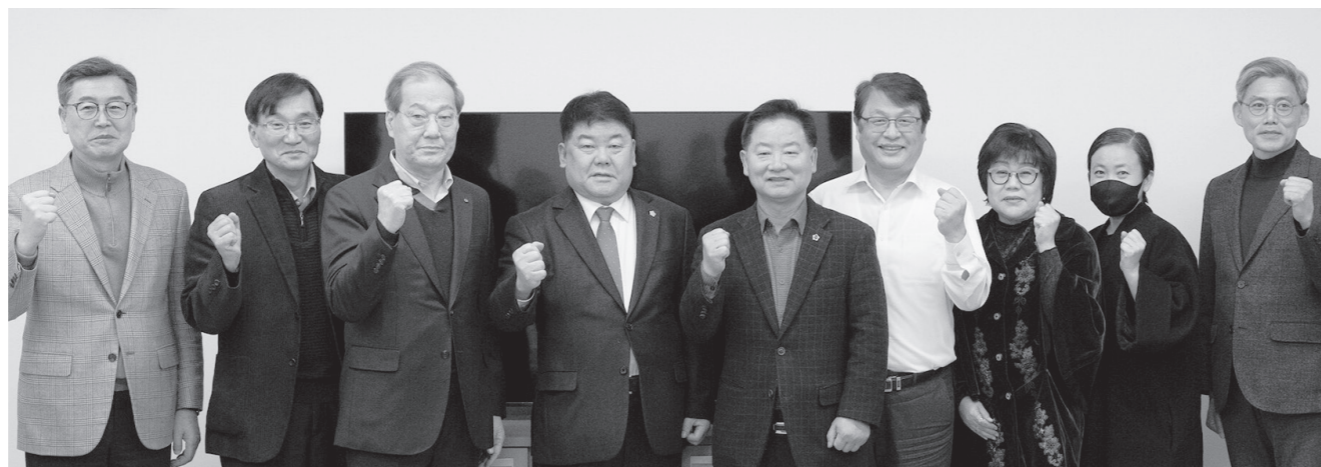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 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는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의회 박창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좌장은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략인재연구원 김현수 원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은 청운대학교 박두경 산학협력단장, 인천일보 윤관옥 논설위원 등이 나섰다.

‘ESG경영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현수 원장은 “우리 삶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들은 탄소중립, 즉 ESG와 연관이 있다”며 “ESG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원장은 기업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과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인 CSV(Creative Shared Value), 그리고 가난과 질병,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주요 ESG 주요 추진 과제로 △탄소중립 능동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ESG 경영 추진체계 확보 △정보공개에 적극적·질적 확대 및 경영자 감시를 통한 윤리경영 확보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구 센터장은 인천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사례와 특징을 분석하고 조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2024년 2월) 기준 전국 66개 시·도·군·구에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인천시 역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공공 기관·중소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박창호 의원

은 “우리 인천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 마련이 절실한 만큼 오늘 토론회의 개최가 뜻깊다”며 “ESG 경영·투자는 단지 일시적인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경영·투자 전략의 대세적 흐름이며 기업의 ESG 경영은 이제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 행정으로 파급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지역기업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인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G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종삼 기자

의회 단신

다음달 개교 학교 준비 점검 나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운서중학교 등을 27일 각각 방문했다.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운서중학교는 검단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이달 8일 준공 완료됐으며 현재 학생 맞이 실내·외 교육환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외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년별 교실·급식실·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위원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경기도가 제출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선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 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860명으로 추정됐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창 기자

“경기아트센터 인권침해로 몸살”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감사실장 월권행위 개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당, 수원3)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문지마시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

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채점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명시하며 “감사실장은 파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돼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고 비판한 후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은 지난해 12월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방자한 태도로 임했으며, 경기아트센터가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비밀유지 의

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다”고 단언한 뒤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6일 옥구공원에 위치한 산림복지센터와 옥구목공예체험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시흥시)

산림복지센터 현장 점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6일 옥구공원에 위치한 산림복지센터와 옥구목공예체험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흥시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지난 해 8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목공예 체험장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돈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산림복지센터를 방문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옥구목공예체험장에서는 목공 체험으로 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민이 원하는 목공 프로그램 지속 발굴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민들의 실용적인 여가 생활과 목공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프로그램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근식 기자

이천시의회 조례 질적 향상 ‘기대감’

자체 입법설명회 열어 조례안 9건 관련 논의

이천시의회가 26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올해 두 번째 이천시의회 자체 입

법설명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에 대한 입안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해 조례안

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에 앞서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2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써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상 기자

www.designdaejin.co.kr

도서출판 수목원가는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늘 처음느낌처럼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感

처/음/느/낌

도서출판 수목원 가는길